

제 36 호 시험 자체평가서

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. 물론 “어떻게 이런 학생이 대학까지 들어왔을까?”하고 능력이 의심스럽기까지 한 경우도 가끔 있지만, 대부분은 공부를 하지 않아서입니다. 그런 학생을 불러다가 상담할 때 자주 반복되는 대화의 예를 들겠습니다.

“학생,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?”

[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] “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”

“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는 것인가요?”

[비장한 각오의 낮은 목소리로] “매일 두 시간씩 이 과목을 공부하겠습니다.”

“...(내일 아침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?)...”

이렇게 막연한 다짐을 하거나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때 시험 점수가 좋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. 매일 두 시간씩 공부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숙제마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시험 못 본 학생들 심중팔은 이런 희망사항이 이미 실현이라도 된 사실로 착각하기도 합니다.

저는 이런 순진한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중간고사를 치른 직후, 시험지를 되돌려 주기 전에 학생들이 <시험 자체평가서>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합니다.

<시험 자체평가서>

이 수업의 교육 목표를 달성했습니까?

만약 달성하지 못했다면,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어떻게 달성하고자 합니까?

현실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.

“예, 수업의 교육 목표를 달성했습니다.”라고 짤막하게 한 줄 써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, 고백성사라도 하듯이 자신의 나쁜 학습 습관을 일일이 분석하고 주일 학습 시간표마저 작성하여 제시하는 학생도 있습니다.

<시험 자체평가서>는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.

1. 학습 달성도를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기회를 줍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의 책임을 학생 스스로가 지게 됩니다.
2. 남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자신 스스로 생각해 낸 방안은 좀 더 쉽게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.
3. 자신이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말로 약속하기보다 글로 적으면 훨씬 더 확실하게 실천하게 됩니다.

학생의 시험 결과와 <시험 자체평가서>를 대조해 보고 다음 세 종류 학생 차례로 만나 상담합니다.

1. 시험은 못 봤는데 “예, 수업의 교육 목표를 달성했습니다.”라고 적은 (주제 파악하지 못한) 학생.
2. 시험은 못 봤지만 앞으로 매일 다섯 시간씩 공부해서 A 받겠노라고 맹세하는 (허무맹랑한) 학생.
3. 시험지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(기특한) 학생.

세 번째 종류의 학생을 만나서는 (만일 그 학생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면) 그 학생의 능력에 도전이 될만한 과제를 특별히 내주거나, 대학원 진학에 대한 개별 지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.